

신한국 창조로 통일 조국을...

# 94年度 統一弘報 基本方向

1994. 4

統 一 院



# 目 次

1. 統一環境의 變化展望
2. 統一弘報의 基本方向
3. 統一弘報의 主要內容
4. 南北間 當面 懸案問題

附錄：金泳三 大統領 第6期

『民主平統』出帆會議 開會辭



## 1. 統一環境의 變化展望

### 가. 周邊情勢

- 탈냉전·동서화합의 시대를 맞아 統一에 유리한 객관적 여건 조성에도 불구하고 韓半島는 北韓의 閉鎖的 社會主義 체제고수로 인해 냉전 체제 미탈피
  - 汎世界的 民主化 趨勢 확산과 UR 타결 등을 통해 國際化·開放化 趨勢 확대
    - 國際關係에서의 經濟·環境·人權 등 非軍事的 要因의 重要性 대두와 함께 『새로운 經濟戰爭』의 시대 돌입
  - 地域經濟·安保協力 體制의 形成 등 脫冷戰 시대의 새로운 國際秩序 형성 기류
    - 각종 地域紛爭 解決에서 UN 등 國際機構의 役割이 증대
  - 北韓 核問題가 韓半島 平和 및 世界平和 威脅要因으로 작용, UN 등 國際社會의 관심 고조
    - IAEA·UN안보리 등 國際社會의 核問題 解決을 위한 共助體制 강화
- ⇒ 北韓의 開放과 人權改善 및 民主化 등 變化에 肯定的 要素로 작용할 것으로 豫想

## 나.北韓動向

- 對內的으로는 社會主義 體制의 非效率性 및 外國의 經濟援助 減少 등에 따른 經濟難 深化
  - 폐쇄적인 自立經濟 體制 固守와 중국 및 러시아의 經濟支援 감축 및 동구국가와의 貿易減少
  - 自由主義 思潮 유입통제 및 體制内部 단속을 위한 住民思想 教育을 강화하나 食糧難·에너지難 등으로 주민들의 不滿 高조
- ⇒ 제3차 7개년 계획('87-'93) 실패로 향후 2-3년간을 社會主義 經濟建設의 緩衝期로 설정, 『農業』·『輕工業』·『貿易』의 3대 제일주의 설정
- 對外的으로는 核問題를 對美關係改善·對日修交協商 등 對外政策 카드로 계속 이용하면서도 體制生存을 위한 方便으로서 制限的인 범위내에서 開放 摸索
  - 外國의 資本·技術導入을 위한 經濟關聯 法令整備 및 UNDP 등 국제기구를 통한 經濟開發 시도
  - 『외국인 투자법』·『합영법』등 제·개정, 제한된 지역에서의 自由貿易地帶 設置 추진 등 開放措置
- 對南政策과 관련해서는 反政府 鬪爭煽動을 강화하면서, 全民族 大團結 원칙에 입각, 統一戰線戰術 구사 지속
  - 『特使交換』실무접촉과 高位級會談 등 當局次元의 對話 외면
- ⇒ 主『北美對話』從『南北對話』戰略을 구사하면서 民間을 對象으로 한 對南煽動 강화

## 다. 國內與件

- 정통성 있는 文民政府 出帆 2년제를 맞아 統一政策 推進에 있어  
참된 의미의 國民的 合意를 마련할 수 있는 基盤 마련
    - '93.7.6. 제6기 『民主平統 出帆會議』 開會式에서 밝힌 『3段階 統一方案』에 대한 國民적 이해 확산
    - 統一問題를 政權維持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종래의 批判은 원천적  
으로 소멸
    - 감상적 統一至上主義의 입지 약화
  - 原則에 입각, 一貫性 있는 對北政策 推進 가능
    - 남북 離散家族問題 해결 등에 대하여 北韓側에 堂堂하게 要求할  
수 있는 상황 조성
  - 전반적으로 北韓의 對南戰略戰術의 效力은 약화가 예상되나, 北韓  
核問題를 위요한 對應政策 관련 國論合意의 艱요성 증가
    - 統一問題가 현실적 問題로 대두됨에 따라 『統一祖國의 未來像』  
統一費用 등이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
- ⇒ 『統一祖國의 미래상』에 대한 구체적 비전 제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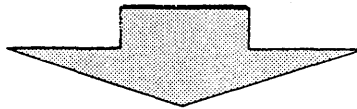
## 2. 統一弘報의 基本方向

### 가. 統一政策의 基本骨格

金泳三 大統領 第6期 『民主平統』 出帆會議 開會辭 ('93.7.6)

- “우리의 祖國은 반드시 統一되어야 합니다.”
- “統一로 가는 過程은 民主的이어야 하며, 統一의 길은 바로 民族繁榮의 길이어야 합니다.”
- “民族構成員 모두에게 『自由』와 『福祉』와 『人間의 尊嚴性』이 보장되는 統一國家가 統一된 祖國의 모습입니다.”

『新韓國 創造』는 統一祖國의 建設로 完결



政府의 『3段階 統一方案』

- 和解協力 段階 : 交流와 協力을 實施하여 共存共榮을 追求하는 단계
- 南北聯合 段階 : 單一 生活共同體 形成을 指向하여 統合過程을 管理하는 단계
- 統一國家 段階 : 1民族·1國家·1體制·1政府 수립단계



나. '94年度 統一弘報의 重點課題

- 『統一祖國의 未來像』에 대한 汎國民的 新념 확산
    - 『自由』·『福祉』·『人間尊嚴性』이 統一祖國의 基本價値임을 강조
    - 統一된 祖國은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선도하고 『21세기의 主役 國家』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新념 부여
  
  - 『3段階 統一方案』에 대한 國民的 合意 公고화
    - 和解協力段階, 南北聯合段階를 거쳐 1民族 1國家의 完전한 統一國家를 이룩하는 『3段階 統一方案』의 合理性 홍보
    - 『깨끗한 政治』·『튼튼한 經濟』·『건강한 社會』를 바탕으로 新 韓國을 創造하는 것이 가장 確실한 統一의 길임을 주지
  
  - 核問題 등 對北政策에 一貫된 政府立場 홍보
    - 南北間 懸案問題를 對話를 통해 解決하려는 政府의 일관된 立場 및 核問題 解決을 위한 意志 부각
  
  - 北韓社會의 改革·開放을 유도할 수 있는 國內·外 輿論 조성
    - 統一을 위해서는 北韓도 變化해야 하며 開放·改革이 거스를 수 없는 歷史的 潮流
- ⇒ 『統一祖國의 未來像』에 대한 國民的 合意의 확충과 함께 南北 關係 進展狀況에 대한 즉시 弘報

### 3. 統一弘報의 主要內容

가. 『統一祖國의 未來像』 제시를 통한 國民 統一意志 강화

◀ 홍보중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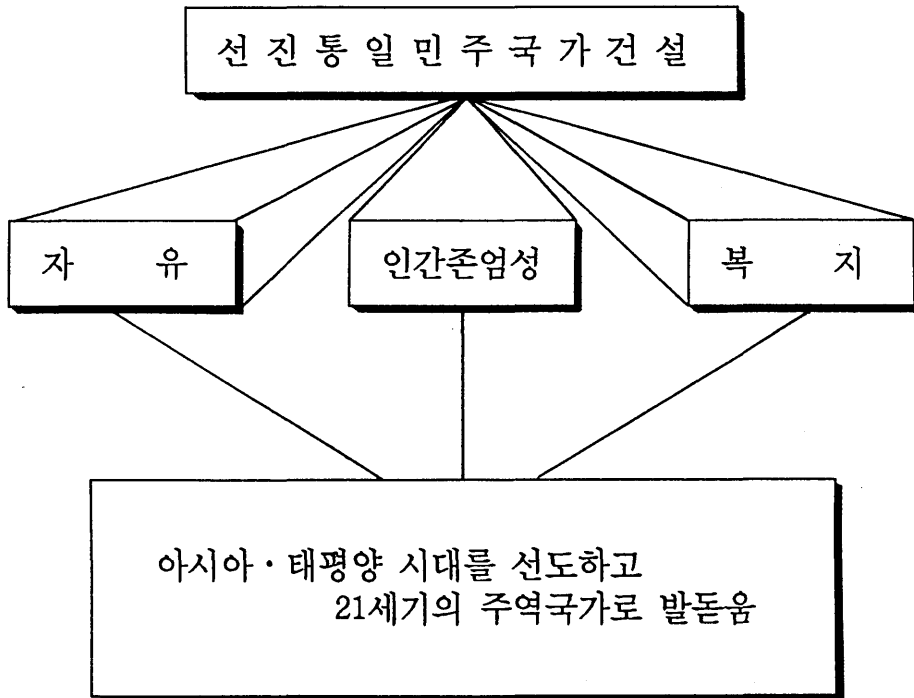
- 新世界秩序 再編過程에서 統一은 멀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
- 『統一된 祖國』은 『自由』·『福祉』·『人間尊嚴性』이 보장되는 『先進民主國家』가 될 것임을 강조

- 『統一된 祖國』을 금세기내에 이룩할 수 있다는 確信 부여
  - 文民政府의 정통성 확보로 國民的 合意에 입각한 統一政策推進이 可能
  - 새로운 世界史의 흐름이 우리의 統一努力에 유리하게 전개
- 『統一된 祖國』은 우리 민족의 『自由』와 『福祉』, 『人間尊嚴性』이 보장되는 완전한 先進民主國家임을 제시
  - 自由 : 分斷으로 인한 不自由와 不便이 해소되고 民族構成員 모두의 自律과 創意가 尊重되며 政治的·經濟的 自由가 보장되는 사회
  - 福祉 : 民族의 總體的 力量이 크게 伸張되어 풍요로운 經濟를 이루고 民族構成員에게 福祉惠澤이 골고루 돌아가는 사회
  - 人間尊嚴性: 分斷으로 인한 人間的 苦痛과 抑壓이 해소되고 法秩序와 正義의 基礎위에서 人權이 尊重되는 사회

○ 또한 『統一된 祖國』은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새 文明創造를 선도하는 中心國家로 발돋움

⇒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기여하는 자랑스런 先進民主國家로서 위대한 한민족시대 개막

< 도표1 > : 『統一祖國의 未來像 및 基本價値 體系圖』



\* 『自由』·『福祉』·『人間尊嚴性』은 世界史 및 民族社會의 發展方向과 일치하는 人類的 普遍的 價値임.

나. 『3段階 統一方案』의 正當性, 現實的 妥當性 홍보

◀ 홍보중점 ▶

- '93.7.6. 金泳三 大統領 제6기 『民主平統』 出帆會議 開會辭에서 천명한 『3段階 統一方案』을 알기쉽게 설명
- 北韓의 聯邦制 統一方案과 비교시 우리 統一方案의 合理性·正當性を 부각

○ 南北韓 統一方案의 比較를 통해 『3段階 統一方案』의 妥當性 홍보

- 우리의 『3段階 統一方案』은 『和解協力段階』, 『南北聯合段階』를 거쳐 『統一國家』를 형성하는 1國家·1制度·1政府의 單一國家를 추구하면서 段階的·漸進的으로 접근하는 現實的인 方案
- 북한의 『聯邦制 統一方案』은 1國家·2制度·2政府를 목표로 하므로 統一보다는 分斷을 固着化할 가능성이 있음

\* 制度統一은 後代에 맡김. ('91.1. 金日成 新年辭)

<도표2>: 『3단계 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비교

구 분	3단계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전제조건	없 음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통일원칙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민족대단결

통일과정		『화해협력』→『남북연합』 →『통일국가』의 3단계 과정	없	음
과 도 통 일 체 제	명칭 및 성격	『남북연합』	없	음
	구성 방법	정상회담에서 『남북연합 현장』 채택을 통해 남북 연합기구 구성·운영	없	음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으로 연방제 실현방법 협의 결정	
통일국가 미래상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며 세계평화에 앞장 서는 선진민주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형 중립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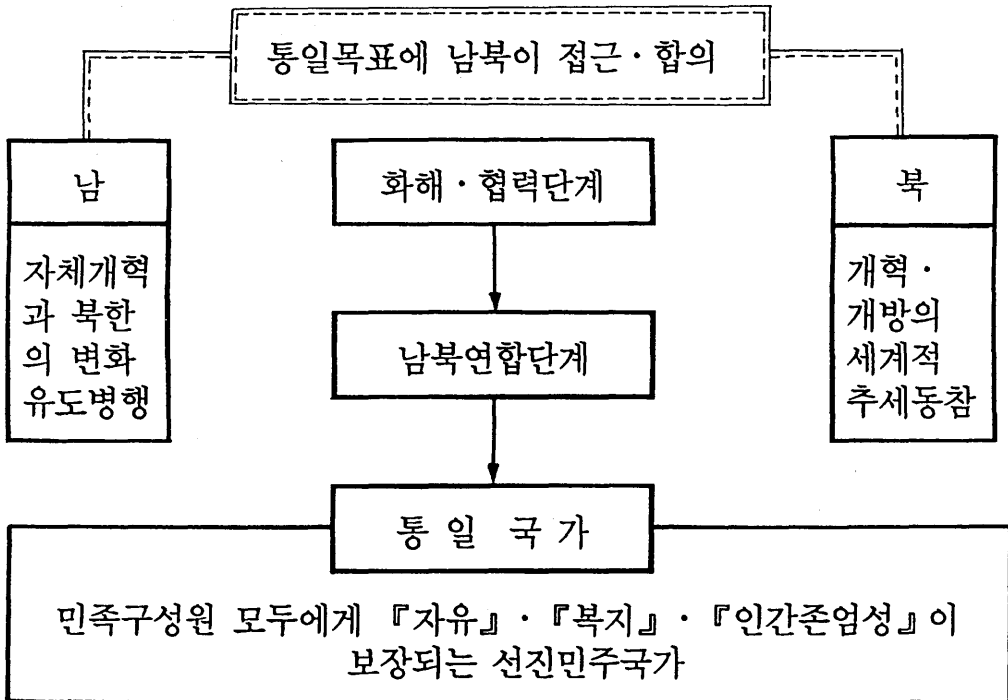
※ 『民主的 國民合意』, 『共存共榮』, 『民族福利』는 『3段階 統一  
方案』을 實現하기 위한 實踐姿勢 또는 精神으로서의 역할

- 우리 統一方案 및 統一政策은 吸收統一을 目標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7천만 民族의 共同福利를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
- 독일·예멘 등 平和統一을 이룩한 나라들의 事例 등을 예시,  
吸收統一 등 급격한 統一의 問題點 등을 설명

○ 統一段階別로 南北韓 當局이 合意 推進해야 할 우선적 課題를 알기 쉽게 설명

- 和解協力 段階 : 南北基本合意書의 履行과 人道的 問題의 解決 등 南北關係의 실질적 진전이 和解協力段階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課題
- 南北聯合 段階 : 民族内部의 特殊關係 위에 形成된 統一中間 過渡 體制로서 상황에 따라 期間 短縮이 가능
- 統一國家 段階 : 民主的 節次에 의한 1民族 1國家로서 自由·福祉·人間尊嚴性이 보장되는 先進民主國家

< 도표3 > : 『統一의 3段階』



다. 統一目標을 우리 内部에서부터 實現

◀ 홍보중점 ▶

- 文民政府의 正統性 基盤위에서 현재 추진중인 改革을 성공리에 완수함으로써 『3段階 統一方案』을 早期에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
- 統一目標에 대한 具體的 合意없이 盲目的 當爲로만 주장하는 것은 상호간 對立·葛藤만 증폭시킨다는 점을 지적

○ 『3段階 統一方案』을 成功的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國民的 合意를 공고히 하고 改革을 成功的으로 推進해야 함을 설명

- 깨끗한 政治 : 道德的으로 성숙한 『民主社會』를 실현

- 튼튼한 經濟 : 經濟的으로 풍요로운 『福祉社會』를 실현

- 건강한 社會 : 法 秩序를 존중하는 『正義社會』를 실현

○ 盲目的인 統一論議보다는 内部改革과 함께 『新經濟 5個年 計劃』등의 착실한 推進을 통해 先進經濟의 基盤을 構築하는 등 實質的인 統一 對備가 필요함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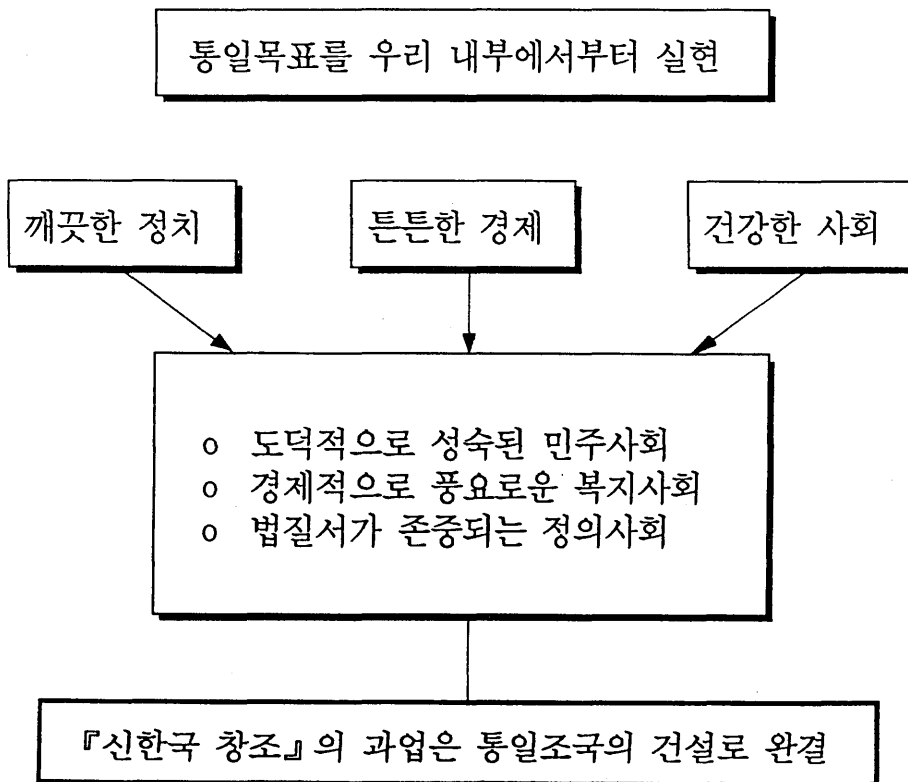
- 統一以後의 經濟가 안정된 基調위에 成長할 수 있도록 튼튼한 統一經濟力 확보가 관건

- 北韓의 突發行動을 牽制하기 위한 우리의 確固한 安保態勢 필요

⇒ 새 政府가 社會와 國政全般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改革을 완수, 新 韓國을 創造하는 것이 統一의 지름길

- 社會全般에 걸쳐 公正하고 合理的인 法 運營과 福祉水準의 向上을 통해 보람을 느끼며 參與하는 共同體 意識을 확립, 北韓에 模範이 되는 『우리』의 정립이 필요함을 설명
- 正義롭고 건강한 社會를 具現하여 미래 統一社會의 道德的 基礎를 마련, 地域間·階層間·世代間 葛藤을 해소하는 동시에 多元的 民主社會 秩序를 정착
- ⇒ 統一祖國의 基本價値인 『自由』, 『福祉』, 『人間尊嚴性』에 대한 汎國民的 신념 확산

< 도표4 > : 『統一目標를 우리 内部에서 實現하기 위한 内部準備』





라. 北韓實相 弘報를 통한 北韓의 開放·改革의 必要性 강조

◀ 홍보중점 ▶

北韓의 對南戰略의 二重性和 함께 北韓社會의 實相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民族의 共存共榮과 統一을 위해서는 北韓도 變化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北韓이 體制維持를 위한 生存戰略으로서 既存의 對南革命戰略을 아직도 拋棄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
  - 北韓社會의 人權과 生活實態 등 각분야 實相에 대한 對內外 弘報
    - 정치범 수용소 등 人權蹂躪 사례를 통해 北韓은 基本的 人權이 충분히 保障되지 않고 있는 現實
    - 최근 食糧難과 에너지難 등으로 經濟가 어려운 局面에 직면
    - 국제기구 발표, 방북인사 견문 등 客觀的 事實과 資料에 근거하여 住民의 日常生活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달
  - 北韓의 對內外的 狀況이 조만간 北韓體制 崩壞로 연결될 것이라는 성급한 判斷이나 展望등은 경계
- ※ 文民政府 出帆으로 反共教育 또는 北韓實相 歪曲 가능성에 대한 疑心과 批判의 소리는 源泉的으로 사라짐

마. 政府의 南北間 合意事項 實踐努力 강조

홍보중점

南北 和解協力時代의 規範으로 되어 있는 『南北基本合意書』, 『附屬合意書』 및 『非核化 共同宣言』에 明示된 南北間 合意 事項들의 성실한 履行 필요성

- 南北關係의 實質的 進展을 위해 政府가 기울여온 南北對話 努力부각
  - 『實質的인 對話』, 『南北合意事項 履行·遵守』, 『相互性』의 原則 하에 政府의 一貫性 있는 對話姿勢에 대한 國民的 支持基盤 확대
  - 生産的인 南北對話를 위한 基本原則的 要素 제시 및 特使交換 實務接觸 經過에 대한 弘報
- ⇒ 『모양내기식』 對話지양, 毅然하고 一貫性 있는 對話姿勢를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
- 南北間 合意事項 實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바람직한 國民姿勢와 輿論의 役割 환기
  - 『南北基本合意書』, 『附屬合意書』, 『非核化 共同宣言』 등 南北間 合意事項의 실천이 우리 一方的인 努力만으로는 어려운 現實에 대한 國民들의 이해 필요
  - 合意書 實踐을 위한 政府와 民間간의 유기적 協調體制 및 國民的 姿勢確立이 필요
- ⇒ 北韓側의 合意事項 履行 遲延姿勢에서 벗어나 誠實하게 南北對話에 응해나와야 할 것임을 강조

#### 4. 南北間 當面 懸案問題

##### 가. 北韓 核問題

- 北韓의 核武器 開發은 南北關係의 실질적인 進展을 가로막는 문제 일 뿐 아니라 우리 民族의 生存과 世界平和를 威脅하는 중대한 사안 이므로 반드시 解決되어야 할 問題임을 설명

##### ◀ 核問題 解決을 위한 政府의 基本立場 ▶

- 北韓 核問題는 最優先的으로 解決
- 對話와 協商을 통해 平和的 方法으로 解決
- 國際共助體制 및 民族内部 次元의 努力을 並行하여 解決

- 北韓 核問題 解決과 관련 韓半島 問題의 직접 當事者 및 IAEA 會員 國으로서의 政府의 努力 부각

- 政府가 美國에 지나치게 依存하는 등 積極的·自主的 對應努力이 부족하다는 一部의 認識을 拂拭

- IAEA 및 南北相互 核査察을 실시하여 核透明性을 확보하는 것만이 北韓 核問題 解決에 捷徑이 됨을 강조

##### ◀ 核問題 解決을 위한 政府의 努力 ▶

- 韓半島의 非核化와 平和構築을 위한 宣言(1991.11.8)
- 核武器 不在宣言 (1991.12.18)
- 韓半島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 合意 (1991.12.31)
- 核統制共同委員會의 構成·運營을 위한 合意書 採擇 協議 (1992.2.19 - 3.14)
- 南北特使交換 實務接觸 (1993.10.5 - 1994.3.19)
  - 8차례에 걸쳐 特使交換의 節次問題 등을 협의했으나 特使의 任務, 訪問順次, 滯留期間 등에서 異見 노출

## 나. 離散家族問題

- 離散家族問題는 人道的 견지에서 他問題와 결부시키지 않고 解決되어야 한다는 것이 政府의 基本立場
- 人道的 問題解決에는 條件을 달수없음을 설명하며 體制維持에 대한 威脅憂慮 및 條件提示 등 北側의 消極的인 態度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림
- 離散家族問題를 人道主義 次元에서 우선 解決하여 南北關係 進展의 물꼬를 트는 것은 가장 名分있는 일임을 강조
- 政府는 離散家族의 고통을 해소하고 民族的 紐帶와 和合을 도모해 나간다는 立場에서 그동안 機會있을 때마다 離散家族問題 解決을 위한 여러가지 事業을 推進할 것을 北韓側에 促求하여 왔으며 이 를 위한 각종 措置를 취해왔음을 설명

### ◀ 離散家族 問題解決을 위한 政府의 努力 ▶

-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을 위한 大統領 特別宣言 (1988.7.7)
- 民族大交流를 위한 大統領 特別宣言 (1990.7.20)
-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制定·公布 (1990.8.1)
- 政府의 李仁模 訪北許容 (1993.3.19) 등

⇒ 北韓은 그들의 體制에 미칠 惡影響 등을 고려, 初步的인 人權問題인 離散家族들의 生死確認·書信交換마저도 외면하고 있음을 설명

## 다. 南北交流協力

- 政府의 統一政策 實踐精神인 『民族福利』와 『共存共榮』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南北사이의 활발한 交流協력이 필요
    - 經濟·社會文化 分野 등 分野別로 南北交流協력을 活性化하여 南北間 信賴와 民族同質성을 회복해 나가는 實質的 努力이 關건
  - 그러나 北韓 核問題가 國際的 懸案問題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經濟協력을 포함한 南北關係의 實質的인 進展을 기대할 수는 없음
  - 北韓의 核透明性이 확보될 때까지 南北間 經濟協力事業과 企業人의 訪北 推進은 계속 留保하되, 이제까지 進行되고 있는 對北物資 交易과 제3국에서의 相談을 위한 接觸은 허용해 왔으며, 社會文化 分野의 交流는 事案別로 許容與否를 檢討해 왔음
  - 특히 經濟交流協력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直交易 活性化와 아울러 賃加工交易과 輕工業 중심의 小規模 協力事業을 거쳐 大規模 協力事業으로 발전시키는 段階的 接近이 바람직함
  - 南北間 交流協력을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南北基本合意書』와 『附屬合意書』에서 合意한 대로 南北 當局間의 對話를 통해 각종 制度的 裝置를 마련, 시행하는 것이 중요함
- ⇒ 北韓 核問題 解決狀況에 따라 社會文化分野에서의 交流와 經協을 段階的으로 확대해 나감



**附錄**：金泳三 大統領 第6期「民主平統」  
出帆會議 開會辭('93. 7. 6)





친애하는 民主平和統一諮問委員 여러분,  
7천만 내외동포 여러분,

오늘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가 문민시대를 맞아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平和統一은 7천만 겨레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統一을 現實로 만들어 가려는 우리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民主平統은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룩하고, 國民의 意志와 力量을 한데 모으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統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헌신해 오신 국내외 1만여 諮問委員 여러분의 노고에 衷心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로 위촉된 제6기 諮問委員 여러분이 혼신의 힘을 다해 統一祖國 建設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이번 자문위원 중에는 도덕성과 개혁의지를 갖춘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諮問委員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 轉換期에 서 있습니다.

세계는 理念의 대결에서 經濟 경쟁으로, 軍事的 대립에서 平和의 競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韓半島만이 해빙과 화해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分斷國이라는 불명예를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천3백여년간 「1民族·1國家」 체제를 유지해 온 우리 겨레에게 반세기도 안되는 分斷은 아주 짧은 기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祖國은 반드시 統一되어야 합니다.

分斷은 우리 겨레 모두에게 엄청난 苦痛과 恨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 苦痛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內實없는 統一을 感傷的으로 바라서는 안됩니다.

統一없는 自由가 불완전하다면, 自由없는 統一은 더 불완전합니다.

統一없는 繁榮에 문제가 있다면, 繁榮없는 統一에는 더 문제가 많습니다.

統一된 祖國에서는 政治的, 經濟的 自由가 보장되고 福祉와 人權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統一로 가는 과정은 民主的이어야 하며, 統一의 길은 바로 民族繁榮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統一은 먼저 和解와 協力の 단계를 거쳐 「南北聯合」 단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南北聯合」 단계에서 남북간의 交流·協力은 더욱 활발해지고 制度化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간의 冷戰구조와 대결 의식은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과 북은 점차 1民族 1國家의 統一祖國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3단계 통일 방안입니다.

諮問委員 여러분,

저는 남과 북이 「南北聯合」 단계에 들어 설 수 있도록 最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위한 統一政策의 세가지 基調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民主的 절차의 존중입니다.

새 政府는 國民的 合意를 바탕으로 3단계 統一政策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새 文民政府는 정통성, 도덕성, 대표성을 가진 民主政府입니다. 이런 정부만이 國民의 자발적 支持를 토대로 統一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文民政府가 統一政策을 政權유지에 이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제 北韓 當局도 우리 내부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헛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正統性を 지닌 政府만이 민족과 국민의 運命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북한당국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로, 共存共榮의 정신입니다.

南北間의 평화공존은 반드시 共同繁榮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서로 가난하게, 부자유스럽게 共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南北이 다 함께 자유와 풍요를 누리면서 共存해야 합니다.

제가 北韓을 吸收統一할 뜻이 전혀 없다고 여러차례 밝힌 것은 바로 이런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셋째로, 民族福利의 精神입니다.

統一은 민족전체의 「삶의 質」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自由와 福祉와 人間의 尊嚴性이 보장되는 統一民主國家, 이것이 바로 민족전체의 福利가 구현되는 統一된 祖國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民族福利의 가치는 인류보편의 價値입니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열린 民族主義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처럼 열린 세계로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결코 북한의 고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諮問委員 여러분,

지금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相互信賴입니다.

信賴는 合意와 約束을 지킬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은 非核化 共同宣言을 통해 핵무기를 갖지 않고, 핵에너지 오직 平和的 목적으로만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核시설을 相互査察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직까지 履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북한의 核개발 의혹이 세계적인 문제로 飛火되었습니다.

核문제의 해결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韓半島의 平和도, 世界平和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북한이 하루빨리 核武器 개발 의혹을 씻어냄으로써 南北關係를 改善하고, 國際平和에 이바지할 것을 促求합니다.

지금은 南北對話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새 政府는 民族共滅의 불행을 막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對話의 문을 계속 활짝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對話가 中斷되어서는 안됩니다.

같은 民族끼리 對話를 중단해야 할 문제가 일어났을때야 말로, 對話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남북관계도 새롭게 展開되어야 합니다.

남북간에 이기고 지는 對話, 어느 일방에게만 유리한 對話는 더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쌍방 모두가 함께 이기는 對話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交流를 점차 확대하고 실천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解決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南北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소해 주는 노력이 먼저 結實을 거두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의 家族再會가 생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이미 人道的 차원에서 李仁模 노인의 北韓訪問을 許容한 바 있습니다.

저는 北韓 當局이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誠意있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民主平統諮問委員 여러분!

休戰이 된 지 올해로 40년이 되었지만 戰爭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過去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過去의 포로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지난날 쓰라린 同族相殘의 경험을 거울삼아 앞으로 아름다운 民族統一의 새 歷史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統一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내부적으로 튼튼한 힘을 기르고, 國民 모두가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不正腐敗를 척결하고, 經濟를 되살리고, 國家紀綱을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統一에 대비하고 統一을 앞당기는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새 政府가 내세운 「新한국 창조」의 과업은 統一祖國의 建設로 완결될 수 있습니다.

統一은 바로 우리 民族이 다함께 이루어야 할 가장 큰 改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불붙은 改革의 열기를 결집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統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뜻에서 民主平統이 현단계의 統一運動은 바로 改革運動이라고 방향을 설정한 것은 참으로 적절한 인식입니다.

각 地域과 職能의 대표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民主平統이 變化와 改革을 率先 垂範할 때, 改革은 더욱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諮問委員 한사람 한사람이 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다할 때 지 역사회가 변하고, 일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意識改革과 道德性 回復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統一實現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民主平統 諮問委員 여러분,

改革의 대장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改革은 더 깊고, 더 넓게 확산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民主平統이 統一의 주체, 改革의 주체로서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感謝합니다.

